

- 2020년 멕시코 치안여건 및 향후 전망-

일자 : '21년 4월 9일	무역관명 : 멕시코시티	작성 : 김민정	
		TEL : +52-55-5514-3173	EMAIL : minkim.kotra@gmail.com

□ 보고내용

- 치안 전문 컨설팅 회사인 DataInt社 보고서¹⁾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20년 범죄율은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특히, 납치 및 차량 절도 범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 총 범죄율: -12%/ 유괴·납치(-38.7%)/ 차량절도(-23%)/ 갈취(-9.8%)
- 이러한 범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살인통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살인을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 연간 살인건수: 35,484명(97명/日) ⇨ '19년 대비 0.4% 감소에 불과
 - * 인구 10만명당 살인율: 26.9% ⇨ '19년 대비 1.3% 감소에 불과
 - * 주요 조직범죄단 소재지 10개 지역²⁾에서 전체 살인사건의 53% 발생
- 또한, 보고서는 정부의 도로치안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차량습격, 요금소 불법점거)
 - * '20.1-10월 기간 중 총 695건의 차량습격/탈취 발생 (화물차량 650건, 승용차 45건)
 - * '20.1-10월 기간 중 33개의 요금소, 최대 10개월간 불법점거 ⇨ 추정 피해액 36억불
- DataInt는 각종 대내외 여건 감안 시 금년도 치안전망은 밝지 않으며, 특히 FORTASEG 폐지에 따른 지자체 치안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힘

1) DataInt社 2020-21년 멕시코 범죄보고서

<https://dataint.mx/2021/01/27/riesgos-para-la-seguridad-en-mexico-20-21/>

2) Baja California, Chihuahua, Guanajuato, Zacatecas, Sonora, Michoacan, Colima, Quintana Roo, Morelos, Guerrero

- * 대내 : 정부의 치안 행정력 부재, 지자체 치안강화기금(FORTASEG) 폐지
- * 대외 : 美 정보기관과의 관계 악화

□ '21년도 전망

- 금년 주요 범죄 집중지역으로 Zacatecas · San Luis Potosi 접경 지역, Sonora, 미국 국경 지역(Tijuana/BC, Juarez/Chihuahua), Tamaulipas, Guanajuato, Michoacan, Morelos, Oaxaca로 예상
 - * 범죄조직 간의 세력 다툼 및 마약·무기 밀수지역 확장으로 인한 범죄집중지역
- 상반기의 전반적인 범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나, 건강과 관련된 제품(백신 및 의료용 산소탱크 등)의 절도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 및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멕시코에서는 선거철마다 관련 정치인과 공직자 살인사건 발생
 - * 2018년 대선 당시, 정치에 연관된 피살자 150명
 - *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DataInt 조사에 등록된 선거관련 피살자 22명

□ 시사점

- '21년 상반기 국가수비대와 州 경찰은 올 6월에 있을 총선 및 지방선거 관계자³⁾ 안전을 위해 투입되어, 경호 및 범죄⁴⁾예방 업무를 담당할 예정. 이로 인해 CCTV · 방탄조끼 · 방탄차 등 관련 치안품목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구매주체가 중앙정부(공공안전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인 관계로, 실질적인 구매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함

3) 후보, 경선후보, 관련 공무원등

4) Estrategia de Protección en Contexto Electoral: '21년3월4일 AMLO대통령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선거 관련자를 위한 보호전략